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8.3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현대ENG, 새 가치체계 선포...공간·에너지 통합가치 창출 본격화 (‘26.7.31, 뉴시스)

-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소·소형모듈원자로·핵융합·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, 원천기술 확보부터 사업개발·투자·운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
- 화공플랜트 부문에서는 기존 플랜트 역량을 바탕으로 탄소포집·저장,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, LNG 등 저탄소 플랜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함
- 현대엔지니어링은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에너지 기반시설 구축·운영과 차세대 에너지원·효율화 기술을 접목한 산업건축 사업을 함께 추진함

○ 액체수소트럭 상용화 '첫 걸음'...258억원 국책과제 본격 착수 (‘26.7.30, 에너지신문)

-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4개 참여기관은 258억원 규모 액체수소트럭 국책과제에 선정돼 연구개발에 착수함
- 산업통상부 주관·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담 과제는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되며, 국비 180억원과 민간부담금 78억원이 투입됨
- 참여기관은 액체수소 연료시스템 핵심부품·모듈화, 상태진단·안전관리, 수소전기트럭 제작·실도로 안전성 실증을 수행해 대형 수소상용차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임

○ 충주시, 친환경 수소버스 추가 도입… 8월 1일부터 본격 운행
(’26.7.31, 국제뉴스)

- 충주시는 서충주 지역의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수소버스 1대를 추가 도입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운행함
- 이번 추가 도입으로 충주시 수소버스는 지난해 투입한 2대를 포함해 총 3대로 늘어나며, 추가 차량은 서충주 순환노선에 배치됨
- 충주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해 수소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함

○ “재생에너지 100GW 시대, 수소는 선택 아닌 필수 전략자산이다”
(’26.7.30, 에너지데일리)

-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도약을 위한 수소 섹터커플링 정책포럼에서 수소가 에너지 안보, 전력계통 안정, 시스템 경제성, 정책 통합을 뒷받침하는 필수 전략자산이라고 제시함
- 수소는 태양광·풍력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남은 전력을 압축·액화하거나 암모니아로 전환해 장기간 저장·운송함으로써 출력 제한과 송전망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함
- 유 교수는 수송부문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버스·대형트럭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차량 보급과 거점형 충전 인프라를 연계한 중장기 수소차 보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함

□ 해외

- [사우디아라비아] 야라, 네옴 2.2GW 프로젝트 그린암모니아 판매 참여 ('26.7.30, Hydrogen Insight)
 - 야라는 에어프로덕츠와 계약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2.2GW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프로젝트의 그린암모니아를 구매·판매하기로 함
 - 에어프로덕츠는 2020년 사우디 정부·아크와파워와 공동 개발하는 네옴 프로젝트의 전체 생산량을 인수하기로 했으며, 이번 계약으로 야라의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한 판매·운송 체계를 확보함
 - 야라는 에어프로덕츠가 직접 판매하지 않은 그린암모니아 물량을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며, 양사는 2025년 12월부터 계약 조건을 협의해 왔음
 - 네옴 프로젝트는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, 에어프로덕츠는 대규모 그린암모니아 생산시설과 야라의 유통망을 연결한 통합 가치사슬을 구축한다고 설명함
 - 야라와 에어프로덕츠는 네옴 그린암모니아의 상업 유통 외에도 미국 루이지애나 블루수소 프로젝트 등 수소·암모니아 공급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



< 사진: 네옴 그린수소 플랜트, 출처: NEOM Green Hydrogen Company >

○ [중국] 산시성 수소트럭 70대, 누적 200만km 상업 운행
(’26.7.30, FuelCellWorks)

- 산시수소에너지는 2026년 1월부터 수소 대형트럭 70대를 투입해 6월30일까지 누적 200만km를 안전 운행하고, 석탄 36만톤을 운송하면서 수소 265톤을 사용함
- 차량은 중국석탄과 옌창을 연결하는 2개 실증 노선에서 운행하며, 회사는 왕허·진지탄 충전소를 운영하고 루위안·왕이 충전소와 수소 공급원을 추가 구축하고 있음
- 회사는 수소트럭이 기존 연료 트럭보다 1km당 이산화탄소 약 0.68kg을 줄여 누적 1,451톤을 감축했으며, 차량·충전소·수소원을 실시간 관리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함
- 산시수소에너지는 도로·철도 연계 물류와 수소 생산·저장·운송·충전·활용 체계를 확대해 2030년까지 수소 대형트럭 1만대를 관리할 계획임



< 사진: 산시수소에너지 수소 대형트럭 운행, 출처: Shaanxi Hydrogen Energy >